奉化 淸凉寺 乾漆藥師如來坐像의 陀羅尼와 典籍資料

南權熙*

Ⅰ. 머리말
Ⅱ. 역사 기록상의 蓮臺寺와 淸凉寺
Ⅲ. 乾漆藥師如來坐像 腹藏內 陀羅尼와 文獻
Ⅳ. 文殊菩薩像 腹藏內 陀羅尼와 文獻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보물 제1919호 〈奉化 淸凉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은 불상 1구, 복장유물 19건 208점이다. 건칠불상은 나무로 뼈대를 조립한 다음 흙으로 형태를 만들어 그 위에 삼베를 입혀 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서 일정한 두께를 얻은 후 조각하여 만든다. 그 뒤 후두부나 등, 바닥에서 창을 내고 내부의 흙을 파낸 다음 변형을 막기 위한 심목을 넣고 봉합하여 마지막 성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불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상된 불상에서는 엄숙한 상호가 느껴지고,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형태, 탄력과 절제된 선으로 석굴암 본존불 등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의 양식 계통을 따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조성시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서 불상의 바탕층에 대한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결과에 의거하여 770~945년경으로 도출됨에 따라 이 불상은 이르면 8세기 후반, 늦어도 10세기 전반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930년경, 보물 제999호)'과 함께 18점 정도 알려진 우리나라 건칠불상의 시원적 작품으로서 중요한 불교 조각사적 의의를 지닌다.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편 불상과 더불어 복장물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몇 차례 조사에서 이 乾漆佛像(夾紵佛像)의 복장물들의 일부는 청량사에 함께 전해오는 고려시대 14세기의 건칠문수보살좌상의 것으로 추정된 바도 있다. 이 문수보살상은 등판이 훼손되어 복장 안에 납입되었을 일부 복장물들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조성시기의 추정에서도 불상의 밑면 건칠 층 가운데 부분의 삼베를 측정한 결과 방사성 탄소연대가 A.D. 900~945년경으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주로 다루는 영역은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불의 복장물 중에서 불경류 전적과 다라니류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으로 형태, 간행시기, 내용 등을 살펴본 것이다. 그 시기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체로 개금이나 수리 등에 의하여 복장불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와 관련된 것이 많다. 불경류는 대부분 고려 후기 및 조선 전기 간행본들이 주를 이루지만 斷簡 또는 落張이 많아 온전한 것이 거의 없다. 다라니류는 복장의식의 사상적 의미로서도 표현되고 복장품의 후령통을 싸는데 사용되어 충전용이라 量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복장전적은 불량답시주목록 2책과 다라니류 4종만을 복장유물과 함께 일괄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역사 기록상의 蓮臺寺와 淸凉寺

1. 腹藏 實物 資料의 기록

불상의 복장에서는 조선시대 1560년경의 결원문과 1715년의 중수기록이 발견되었고, 고려 후기 철원최씨 집안의 侍中 崔宗俊이 1239년에 印施한 다라니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다라니는 약사여래상의 조성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배경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최종준이 인시한 다라니가 알려진 것은 서울소재의 守國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에서 나타났고 그 다라니의 인쇄상태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있지만, 청량사의 다라니는 먹이 짙게 뭉쳐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중복 인출시 겹쳐진 부분도 있다.

다라니 외에 불상의 복장에서는 法舍利의 기능 겸 내부 充塡用으로 납입된 경전과 重修와 관련된 願文 2점이 있었다. 중수 관련 원문은 「千人同發願文」과 「結願文」으로 이 2점의 重修願文은 嘉靖 39년(明宗 15, 1560) 佛像을 중수할 때 참여한 사부대중의 명부를 목록으로 적은 것이다. 그 중 「천인동발원문」에는 이전의 중수와 관련된 간략한 기록이 있어서 이 불상의 제작시

기를 추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이 기록에 의해 사찰의 기원이나 불상의 처음 조성은 알 수 없고 다만 藥師如來像이 색이 퇴색하여 至元 5년 10월에 개금하고, 그로부터 245년 후 다시 퇴색한 불상을 化士 淳默이 중수하고 左右補處인 日光菩薩과 月光菩薩, 그리고 火光 등을 嘉靖 39년 10월에 만들기 시작하여 12월에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至元이라는 연호는 元代에 같은 이름으로 2번 사용된 까닭에 일반적으로 先至元과 後至元으로 구분하지만 기록상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干支가 같이 병기될 때는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원 5년은 1268년과 1339년에 해당하지만, 발원문에 간지가 없으므로 어느 시기인지 비정하기 어렵고 또 발원문의 기록도 정확하지 않아서 嘉靖 39년의 245년은 1315년이며, 두 시기로 볼 때도 1268년의 245년 후는 1513년이고, 1339년의 245년 후는 1584년에 해당하여 두 시기 모두 중수발원문의 1560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복장에서 함께 발견된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이다. 이 진언은 오른쪽 모퉁이에는 세로로 '己亥十月日 侍中 崔宗峻 印施'라는 간기가 찍혀 있는데, 이 진언을 인시한 시중 최종준은 최유청의 손자로 신종 3년(1201)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吏部尙書를 거쳐 대몽항쟁 기간이었던 고종 재위 시에 15년 간 門下侍中을 역임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곳에 등장하는 己亥年은 1239년에 해당한다. 이 진언으로 정확한 중수연대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불상의 중수 시 중수 시점과 가까운 시대의 전적이나 다라니 등이 납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39년과 가까운 지원 5년에 중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 1715년에도 약사여래와 좌우보처에 대한 중수가 있었고 대좌에는 1734년에 새로 조성한 것이라는 묵서가 기록되어 있다.

2. 문헌상의 기록

복장물에서 확인되는 사찰명인 蓮臺寺와 현재의 사명인 淸凉寺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 문집에 나타난 여행기 등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자료로서 가장 빠른 기록은 周世鵬의 1544년 4월의 蓮臺寺 기록을 들 수 있다. 그 후의 여러 기록에서는 연대사에 거처하는 승려 수는 3~4명이며 당시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地藏殿(庵)에서 숙박을 하였다. 당시 지장전은 주세붕의 '청량산 열아홉 절'이라는 언급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 후 權好文이 1570년 방문하여 머무를 때 건물의 단청도 산뜻하였고 주세붕 이후 승려들이 두 암자를 지은 것이 西草幕과 地

藏殿(庵)이라 하였으므로 1544~1570년 사이에 지장전이 세워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蓮臺寺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과거 蓮臺菴, 蓮水菴, 蓮花菴이 있었는데 합하여 연대사로 이름 지었으며, 이름에 '蓮'자가 들어간 이유는 西臺 아래의 땅이 연꽃 같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그밖에 李瀷(1669~1742)의 『龍浦文集』중 「記淸凉山行」에서는 1725년 2월 17일에 蓮臺寺에 다달아 걸어서 東上室로 올라가서 方禪堂으로 내려갔고 축융봉 아래 습지에는 蓮이 있어서 연잎이 일산만큼 크고 꽃도 물에서 자란 연과 같지 않아 절 이름도 연대사인 까닭이 이 연 때문이라 언급한 기록도 있다.

연대사의 규모에 대하여 申厚載(1636~1699)의 『葵亭集』에 수록된 「遊淸凉山記」에는 1673년 9월 2일 날이 어두워져 승려 戒淨이란 자의 인도로 지장암에 들어갔고 암자는 절벽에 걸려 있었는데 정갈하면서도 매우 빼어난 모습이라 하였다. 그 서쪽은 琉璃寶殿으로 양 옆의 처마 아래는 선승의 방이며 그 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香爐殿이 나오고 그 남쪽은 淸風樓이니 이들을 다 합쳐 蓮臺寺라 한다고 하였다.

한편 淸凉寺라는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姜再恒(1689~1756)의 『立齋遺稿』 卷12 「淸凉山記」에서 이다. 그는 1712년 9월 15일에 산으로 들어가 蓮臺寺에서 머무르면서 연대사가 신라 승려 義湘이 지은 절로 옛날에는 金塔峰 아래에 있었고 淸凉寺라고 불렀으며 萬曆연간(1573~1619)에 화재가 일어나 이곳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기록으로 金綏(1728~1801)의 『芝崖遺稿』 중 「遊淸凉山記」에서는 1759년 8월 10일 蓮臺寺의 옛 터에 도착할 방법이 없어 새 절집에서 유숙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절의 창건은 1749년(영조 25)인데 왕래의 편리함과 생업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큰 도로 가에 절을 세웠다고 하였고, 8월 11일 걸어서 연대사에 오르니 쓸쓸히 옛 터만 남았다고 하여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연대사가 강재항이 언급한 청량사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연대사를 방문한 기록은 1939년 8월 金應煥의 『玄沙文集』 중 「觀淸凉山記」에 蓮臺庵이라는 기록이 있고 이 연대암이라는 이름은 주로 1820년경부터 연대사라는 명칭과 함께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후의 자료상에 나타난 기록으로 볼 때 지금의 청량사라는 명칭은 적어도 20세기 전반 이후에 명명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각 복장물에 연대사라는 명칭도 이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조선후기에 작성된 각종 地圖나 地誌類, 봉화관련 자료 등에서는 연대사, 연대암이라는 명칭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은 조선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개인 문집들에서 청량산을 여행하고 연대사를 방문

했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1) 周世鵬(1495~1554), 「遊淸凉山錄」, 『武陵雜稿』 卷7

* 1544년 4월 11일 : 해가 저물 무렵에 **蓮臺寺**에 이르니 천봉이 울긋불긋하다.

2) 權好文(1532~1587), 「遊淸凉山錄」, 『松巖集』 卷5

* 1570년 11월 10일 갑술일 : 조금 있으니 **蓮臺寺**의 승려 몇 명이 와서 맞이하고 **지장전**으로 옮겨 머물 것을 권하므로 곧 옮겨갔다. 단청이 산뜻해서 머무를 만하였다.

* 12월 5일 무술일 : 신재 주세붕의 시에 '청량산 열아홉 절, 절마다 문 앞에는 바위가 있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 뒤 승려가 암자 둘을 따로 지었는데 西草幕과 **地藏殿**이 그것으로 모두 스물하나가 된다.

3) 權宇(1552~1592), 「遊淸凉山錄」, 『松巢集』 卷3

* 1575년 10월 23일 : 寶文庵, 中臺庵 등 몇몇 암자를 거쳐 **蓮臺寺**로 들어가 **地藏殿**에 앉아……

* 10월 26일 : 대개 **연대사는 이 산의 巨刹**로서 바로 산허리에 자리 잡고 있다.

* 11월 23일 : 여러 사람들이 문수사가 높고 추워 오래 머물 수 없다하여 **연대암**으로 돌아가 머물고자 하니 함께 내려갔다. 여러 사람들은 **지장전**에 묵었고 나는 홀로 중대에 묵었다.

4) 金得研(1555~1637), 「淸凉山遊錄」, 『葛峯集』 卷4

* 1579년 9월 1일 : 한 승려가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곳이 三角墓입니다. 옛날 한 승려가 **蓮臺寺**를 창건하려고 뿔 셋 달린 소로 변하여 재물을 나르고 일을 하였는데……"

* 하늘이 어두워지려 하자 **地藏殿**에 들어가니 승려들이 뒤따랐다.

* 9월 3일 : 절벽을 돌아 夢想庵을 향하니…… 곧 **연대사**의 上界로, 이 산의 가장 기묘한 곳이다.

* 9월 4일 : 솟아 있는 모습이 연꽃과 같아 연화봉이라 하였는데, 곧 **연대사**의 서쪽 봉우리이다.

5) 黃暐(1554~1602), 「遊淸凉山錄」, 『檜山世稿』 卷8

* 1582년 9월 18일 : 바로 **蓮臺**의 승려로 숲속에서 종이를 만드는 이다.

* **연대사 地藏殿**에 들어가 유숙했다.

6) 趙守道(1565~1593), 「新堂日錄」

* 1592년 2월 10일 : 산중의 해는 이미 서산에 지고 돌길 험로를 간신히 걸어 절에 이르니 절 이름이 **연대사**였다.

* 2월 11일 : 서로 손잡고 **연대**에 올랐다.

7) 申之悌(1562~1624), 「遊淸凉山錄」, 『梧峯集』 卷6

* 1594년 9월 3일 : **蓮臺寺** 아래 이르니 길가에 높이가 대여섯 길이나 되는 암석이 솟아 있다.

* 절의 남쪽에 **연대**가 있어서 승려와 나란히 앉아 산의 형세에 대해 물어보니 승려가 절의 왼쪽을 가리키며 金塔, 오른쪽을 가리키며 蓮花라 하고 절의 뒤쪽을 가리키며 僊鶴이라 하였다.

* 저물녘에 **智藏殿**으로 들어갔다. 절은 낡고 승려는 쇠잔하여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다.

8) 權璟(1605~1666), 「遊淸凉山錄」, 『臺隱先生文集』 卷1

* 1600년 4월 : 다만 지금은 **地藏殿** 서너 칸이 남아 있다.

9) 裵應褧(1544~1602), 「淸凉山遊賞錄」, 『安村集』 卷5

* 1600년 5월 17일 : **蓮臺寺**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

* 5월 18일 : **연대사**의 정서쪽에는 蓮花峰이 있고……
* 날이 저물어 돌아오는데, 하대승을 경유하여 眞佛庵을 거쳐 드디어 **연대사**로 내려왔다. 이 절을 처음 지은 것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다. 법당은 크고 웅장하며 누각은 높게 솟아있다.
* 밤에 **地藏殿**에서 잤는데, 매우 높고 고요하며 깨끗하다.

10) 金中淸(1567~1629), 「遊淸凉山記」幷序, 『苟全集』 卷5
* 1601년 11월 9일 : 날이 저물어 **蓮臺寺**에 이르니 승려가 **지장전**으로 맞아들였다. **지장전**은 낡고 누추했다.

11) 金榮祖(1577~1648), 「遊淸凉山錄」, 『忘窩集』 卷5
* 1614년 9월 13일 : 날이 저물어 골짜기 입구에 이르니 물이 깊고 험하며 얕은 여울을 건너가기 어려워 황혼녘에 걸어서 **蓮臺寺**로 들어갔다. **연대사**는 仙鶴峰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산의 중앙에 자리하여……
* 9월 15일 : 걸어서 **地藏殿**을 찾아가니 주지는 출타하여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었다.
* 9월 18일 : 선학봉 아래에는 여섯 암자가 있는데 몽상암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연대사**, 그 다음은 **지장전**……

12) 柳袗(1582~1635), 「遊淸凉山日記」, 『修巖文集』
* 1614년 9월 13일 : 한참 후에야 비로소 **蓮臺寺**에 도착했다.
* 9월 14일 : 동쪽으로 몇 리쯤 가다가 **地藏殿**에 들렀는데 지키던 승려가 산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었다.
* 9월 15일 : ……**연대사**에만 3, 4명, **지장전**에 1명이 살고 있을 뿐이었다.

13) 吳汝橃(1579~1635), 「遊淸凉山錄」, 『敬庵集』 卷2
* 1627년 초가을 : 서쪽으로 수십 걸음을 가니 이것이 **청량산의 원찰인 蓮臺寺**이다.

14) 許穆(1595~1682), 「淸凉山記」, 『記言』 卷28
*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세 개의 바위봉우리를 紫鸞峯이라 하고, 그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봉우리를 僊鶴峯이라 한다. 그 아래에 **蓮臺寺**가 있고, 서쪽으로 바라보면 蓮花峯이 있고……

15) 裵幼章(1618~1687), 「淸凉山遊錄」, 『楡巖集』 卷2
* 1647년 9월 16일 : **蓮臺寺**에 이르러 주위의 여러 봉우리를 빙 둘러보니 모두 금탑봉처럼 기이하였다. 절 앞에 **蓮臺**라는 대가 있었고, 그 서쪽에는 蓮花峯이 있었다.
* 9월 17일 : 신발을 신고 승려 원혜를 앞장서게 한 다음 **地藏殿**을 거쳐 가니 **연대사**의 동쪽 벽 위에 할아버지 안촌공[배응경]과 백암공[김륵]께서 이름을 새긴 것이 있었다.
* 이른바 29개의 암자라는 것은 세 개의 전각과 남은 터를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6) 吳斗寅(1624~1689), 「淸凉山記」辛卯, 『陽谷集』 卷3
* 1651년 여름 : 산허리에 이르자 깊은 계곡에 우뚝한 고찰이 있는데 절의 이름을 물으니 **연대사**라고 하였다.

17) 申厚載(1636~1699), 「遊淸凉山記」, 『葵亭集』
* 1673년 9월 2일 : 절문에 이르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승려 戒淨이란 자가 나를 인도하여 **지장암**에 들어갔다. 암자는 절벽에 걸려 있었는데 정갈하면서도 매우 빼어난 모습이었다. 그 서쪽은 琉璃寶殿으로 양 옆의 처마 아래는 선승의 방이다. 또 그 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香爐殿이 나온다. 그 남쪽

은 淸風樓이니 이들을 다 합쳐 **蓮臺寺**라 한다.

18) 柳熙之(1629~1712), 「遊淸凉山記」, 『蘭皐遺稿』

* 1683년 5월 1일 : **蓮臺寺**에 이르렀다.

19) 權聖矩(1642~1708), 「遊淸凉山錄」, 『鳩巢先生文集』

* 1686년 : 지난 병인년(1686년, 숙종 12년)에 고을의 두 노인과 약속하여 鳳城에서 온 子久 金許 등과 望仙庵에서 묵고서 **蓮臺寺**로 돌아 들어갔다.

* 1706년 4월 4일 : 승려의 말로는 예전에 **蓮臺菴**, 蓮水菴, 蓮花菴이 있었는데 지금은 합하여 **연대사**로 이름 지었으며 이름에 '蓮'자가 들어간 이유는 西臺 아래의 땅이 연꽃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0) 金始燁(1662~1732), 「遊淸凉山錄」, 『默齋文集』

* 1695년 3월말~4월초 : **蓮臺**에 이르렀다. ……열두 봉우리가 **연대** 앞에서 절하며 모이는 듯하였다.

21) 李瀷(1681~1763), 「遊淸凉山記」, 『星湖全集』 卷35

* 1709년 11월 1일 : **蓮臺寺** 안에서 잤다.

22) 姜再恒(1689~1756)[1], 「淸凉山記」, 『立齋遺稿』 卷12 (圖 1)

* 1712년 9월 15일 : 땅거미가 질 무렵 산으로 들어가 **蓮臺寺**에서 묵었다. **연대사**는 신라 승려 義湘이 지은 절로 옛날에는 金塔峰 아래에 있었고 淸凉寺라고 불렀다. 萬曆연간(1573~1619년)에 화재가 일어나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절은 산 가운데 있고 사면이 여러 봉우리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데 실로 이름난 가람이었다.

* 9월 16일 : **蓮臺**의 서쪽 寮舍에서 묵었다.

23) 李瀕(1669~1742), 「記淸凉山行」, 『龍浦文集』

* 1725년 2월 17일 : 절은 **蓮臺寺**다. 곧 걸어서 東上室로 올라가서 方禪堂으로 내려갔다.

* 축융봉 아래 습지에는 蓮이 있다. 연잎이 일산만큼 크고 꽃도 물에서 자란 연과 같지 않다. 절 이름이

圖 1. 〈姜再恒(1689~1756), 「淸凉山記」〉

1) 1689년 9월 28일 安東 春陽縣 法田里에서 태어나 21세 尹拯의 문하로 들어갔다. 1710년 22세때 태백산을 유람하고 23세에 覺華寺, 24세인 1712년에 朴仲深, 朴季深 형제와 청량산을 유람하였다.

연대사인 까닭은 이 연 때문이다.

* 2월 18일 : 또 한 번 돌아가니 상청량과 하청량이 나왔다. …… 상하청량을 외청량이라 부르고 **연대사**를 내청량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내외 청량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24) 李萬敷(1664~1732), 「淸凉山記」, 『息山先生別集』 卷2

* **蓮臺寺**가 가장 오래되었는데 삼국시대를 지나왔다.

25) 安德文(1747~1811), 『東遊錄』

* 1743년 : 중간에 **蓮臺寺**가 있는데 그곳에 투숙하였다.

26) 權正忱(1710~1767), 「淸凉山錄」, 『平庵集』 卷6

* 1746년 9월 12일 : 옆으로 돌길을 건너 **蓮臺寺**로 들어가 묵었다.

* 9월 13일 : 紫霄峰과 卓筆峰은 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열한 개의 암자가 있으니 白雲·滿月·元曉 …… **蓮臺**·別室·中臺·普門 등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열아홉 개의 암자이다.

27) 金綏(1728~1801), 「遊淸凉山記」, 『芝崖遺稿』

* 1759년 8월 10일 : **蓮臺寺**의 옛 터에 도착할 방법이 없어 새 절집에서 유숙하였다. 절의 창건은 1749년(영조 25)인데 용렬한 승려와 추악한 무리들이 한갓 왕래의 편리함과 생업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큰 도로 가에 절을 세웠다.

* 8월 11일 : 법당에 들어가 金生이 금은으로 필사한 것을 보니, 자획이 분방하여 황홀하기가 용과 봉황이 나는 듯하였다. ……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일찍이 **연대사**를 향해 가서 손을 잡고 함께 온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 걸어서 **연대사**에 오르니, 쓸쓸히 옛 터만 남았네……

28) 趙運道(1718~1796), 「遊淸凉山記」, 『月下集』

* 1761년 5월 : 金生窟에 이르러 김생이 기대 앉아 경을 베껴 썼다는 돌을 보았다. 돌은 그 사실을 징험할 수 없으나, 베껴 썼다는 金字經이 굴 속 돌상자에서 나왔고, 그 금은 **蓮臺寺**에 있다고 한다.…… 硯滴峰에 올라 서북쪽의 태백과 소백을 바라보고, 내려와 **地藏庵**에서 잤다. 암자는 옛날 **연대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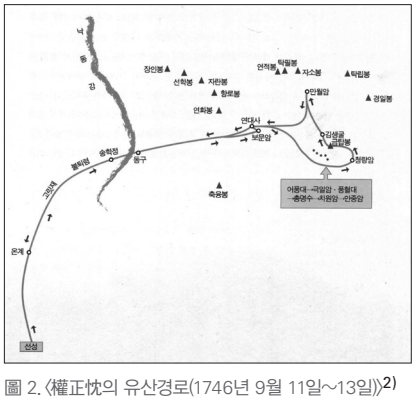


圖 2. 〈權正忱의 유산경로(1746년 9월 11일~13일)〉[2)]

圖 3. 〈金綏의 유산경로(1759년 8월 9일~15일)〉[3)]

2) 청량산박물관,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2(봉화군, 2009), p. 143.

3) 청량산박물관,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3(봉화군, 2012), p. 12.

속한 석굴 가운데에 있으므로 청량산 내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다.

29) 朴忠源(1735~1787), 「淸凉山遊錄」, 『陶塢逸稿』

* 1763년 9월 9일 : 오랫동안 거닐다가 **蓮臺寺**에 들어갔다.

30) 任必大(1709~1773), 「遊淸凉山錄」, 『剛窩集』

* 1763년 9월 9일 : **蓮臺寺**에서 잤다.

* 9월 10일 : 석간수를 따라 가다 길을 틀어 북쪽으로 올라가 **地藏庵**에서 쉬었다. 이곳은 **蓮臺**가 있던 자리다.

31) 李喬年(?~1770), 「遊淸凉山記」, 『艮谷遺稿』

* 동북 골짜기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니 봉우리들이 겹겹이 있고 숲이 매우 우거져 있었다. 3, 4리 쯤 지나가니 **蓮臺寺**가 있었다. 이 절은 옛날 紫霄峯 아래에 있었는데, 근자에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연대사** 남쪽으로 4, 5백보쯤 가니 암자가 있는데 極樂庵이라고 하였다.

32) 朴琮(1735~1793), 「淸凉山遊錄」, 『鐺洲集』 卷15

* 1780년 8월 7일 : 육화암 오른쪽의 **蓮臺**에 선다. 이곳은 이 일대의 중앙에 위치하여 여러 봉우리의 진면목과 정기가 다 모여 있다.

33) 成大中(1732~1809), 「淸凉山記」, 『靑城集』 卷6

* 1784년 8월 16일 : 향로봉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 **地藏庵**에 이르렀다.

34) 金道赫(1794~1839), 「遊淸凉山記」, 『巖塘文集』

* 1820년 孟夏 : 저물녘 배 한척으로 강을 건너 숲을 헤치고 바위 계곡을 더위잡고 올라가 山寺에 이르렀다. 옛 절터는 이미 **蓮臺寺** 아래로 옮겼으므로 온 산 중턱의 僧堂과 佛舍가 황폐해져 무성한 풀밭을 이루어 사람으로 하여금 흥폐의 감개를 일으키게 하였다. 길을 재촉하여 **地藏庵** 입구에 이르니 한줄기 산길이 안개와 노을 속에서 비스듬히 굽이져 이어졌다.

35) 李海德(1779~1858), 「淸凉記」, 『餐霞遺稿』

* 1821년 4월 24일 : 몇 리쯤 가서 草幕으로 들어갔다. 말과 하인을 맡겨놓고 100여 보를 걸어가니 옛 절터가 있는데, 쑥대가 우거져 나막신을 뒤덮었다. …… 아마 이 절은 이 산의 큰 사찰이었는데, 길가에 가까이 있어서 요란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지장암**이 되었다고 한다.

36) 金道明(1803~1873), 「遊淸凉山錄」, 『畏庵集』 卷2

* 1825년 3월 25일 : **지장암**으로 돌아오자 …… 저물녘에 **지장전**에 들어가니 뭇 건물은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범종과 목탁은 호화롭고 아름다웠다.

37) 申鼎周(1764~1827), 「遊淸凉山錄」, 『陶窩集』

* 돌아오는 길에 **地藏庵**에서 점심을 먹었다.

38) 裵善源(1806~1880), 「淸凉遊錄」, 『守磵文集』

* 1833년 3월 25일 : 잠시 쉰 다음에 벼랑을 따라 골짜기를 넘어 **지장암**을 가서 보았다.

39) 成海應(1760~1839), 「淸凉山」, 『硏經齋全集』 卷51

* 탁봉으로부터 서쪽으로 10보를 못가서 우뚝 솟아 오른 봉우리는 이름이 '硯滴'이다. 연적의 서쪽에는 연꽃처럼 솟아 나온 봉우리가 있으니 이름은 '蓮花'이다. 바로 **蓮臺寺**의 서쪽 봉우리로, 불가에서는 義相峰이라고 부른다.

* 선학의 아래에는 **연대사**가 있고, 절의 옆에는 의상대가 있으나, 길이 끊어져 오를 수가 없다. **연대**의

동쪽 구석으로부터 석벽을 잡고 眞佛에 올랐다.

40) 柳致游(1811~1871), 「遊淸凉山記」, 『櫟菴集』

* 1847년 9월 16일 : 아침을 먹고 **연대사**를 향해 갔다.

41) 金喆鉄(1822~1887), 「遊淸凉山詩序」, 『魯園集』

* 1856년 : 御風臺 위에는 孤雲臺가 있고, 북쪽에는 金生窟이 있다. …… 아래에는 **蓮臺菴**이 있으니, 곧 內淸凉이다.

42) 金翊東(1793~1860), 「遊淸凉山記」, 『直齋文集』 卷8

* 암자는 모두 19개인데 白雲·滿月·元曉 …… 文殊·眞佛·**蓮臺**·別室 등으로 모두 승려들이 지었으나 지금은 훼손되고 다만 **연대**와 만월 등 몇 개의 법당만 남아 있을 뿐이다.

43) 李濟永(1799~1871), 「遊淸凉山錄」, 『東阿文集』

* 1866년 : 문수암에서 바로 강당으로 내려와 점심을 재촉해서 먹고, 또 뒤돌아 서쪽으로 가서 **연대암**에 이르렀다.

44) 李相龍(1858~1932), 「遊淸凉山錄」, 『石洲遺稿』

* 1882년 3월 21일 : 옷을 입고 허리띠를 묶고 **蓮臺寺**로 향했다.

45) 宋寅懿(1827~1892), 「遊淸凉山錄」, 『遽庵文集』

* 1883년 4월 5일 : 굴은 金生窟이라 하고 암자는 **蓮臺菴**이라 한다.

* 대를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蓮菴에 이르러 숙박하고, 다음 날 계상으로 돌아갔다.

46) 李裕憲(1870~1900), 「與禹學夫海纖遊淸凉」幷序, 『洛厓遺稿』

* 1887년 4월 : **蓮臺** 서쪽에 연꽃 모양으로 봉긋 솟은 것이 蓮花峯이다.

* 산중에는 10여 개의 암자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며 **蓮臺**의 사찰 몇 곳을 제외하고는 현존하지 않는다. …… 정오 무렵 **蓮臺菴**에 들어가 점심을 얻어먹었다.

* 蓮花峰 아래의 **蓮臺寺**, 반은 구름 속으로 솟고 반은 바위에 걸터앉았네.

47) 宋秉璿(1836~1905), 「自太百至淸凉山記」, 『淵齋先生文集』

* 잠시 동안 (吾山堂) 앉았다가 왼쪽으로 수십 걸음 걸어서 **蓮臺菴**에 들어갔다.

48) 柳欽睦(1843~1910), 「遊淸凉山錄」, 『克菴文集』

* 4월 7일 : 각기 지팡이 하나씩을 잡고서 서쪽으로 **蓮臺寺**로 갔다. **연대사**는 자소봉과 탁필봉의 아래에 있어 온 산의 중앙에 해당이 되며 이곳 역시 승려가 없고 ……

49) 崔憲植(1846~1915), 「遊淸凉山記」, 『息軒集』

* **地藏菴**의 옛터이다. ……모두 무너지고 주춧돌과 깨진 기와만 남아 있다.

* 산 중의 사람 가운데 戒舜이란 자가 있어, **蓮臺菴**으로부터 와서 인사를 하였다.

50) 宋冑煥(1870~1954), 「遊淸凉山記」, 『源泉文集』

* 1922년 5월 6일 : 寶花가 낮에도 고요한 곳이 바로 이른바 **蓮臺寺**이다.

51) 姜信赫(1907~1998), 「遊淸凉山錄」, 『檜山文稿』

* 1924년 4월 : 잠시 앉았다가 다시 오산당을 돌아 **蓮坮庵**에 이르렀다.

52) 朴龍圭(1866~1942), 「淸凉山遊錄」, 『藥泉集』

* 1929년 9월 : 가파른 바위를 밟아 우거진 숲 풀을 헤치고 한 걸음씩 올라가니 바위 골짜기의 몇 이랑 땅에 **蓮臺菴**이 있었다.

53) 金應煥(1894~1969), 「觀淸凉山記」, 『玄沙文集』

* 1939년 8월 : **蓮臺庵** · 金生窟 · 聰明泉 · 應眞殿과 內淸凉 · 外淸凉의 산을 둘러보았다.

* **연대암**은 연화봉과 옥수봉 사이에 있는데 암자는 불타고 남은 佛殿이다.
한국국학진흥원, 『淸凉山誌』(淸凉志, 吾家山誌, 宣城邑誌 合)

* **연대사**는 예전에 紫霄峰 아래에 있어 산중에서 가장 빼어난 곳에 자리잡았다. …… 절이 오래되어 퇴락하자 乾隆 乙亥年(1755)에 동구 아래로 이전하였다. 지금은 佛殿이 옛 터에 우뚝하게 서 있다.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청량사와 연대사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63년(혹은 668년) 무렵 원효 혹은 의상이 창건한 蓮臺寺는 조선 중기에 이르러 3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었다. 이 암자들 중에는 淸凉庵도 포함되었으며, 주세붕을 비롯한 儒學者들은 청량암을 청량사로 혼용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황을 비롯한 10여명의 제자들이 작성한 遊山記에서 청량사를 유람한 것이 아니라 연대사를 유람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裵應褧(1544~1602)의 「淸凉山遊賞錄」(『安村集』)에 연대사와 청량사의 명칭이 동시에 보이는 점을 통해서도 위의 추정에 대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Ⅲ. 乾漆藥師如來坐像 腹藏內 陀羅尼와 文獻

1. 다라니류

1) 고려시대

圖 4. 건칠약사여래좌상과 문수보살상

(1) 八葉心蓮三十七尊曼陁羅 / 一切如來心全身事理寶篋眞言(圖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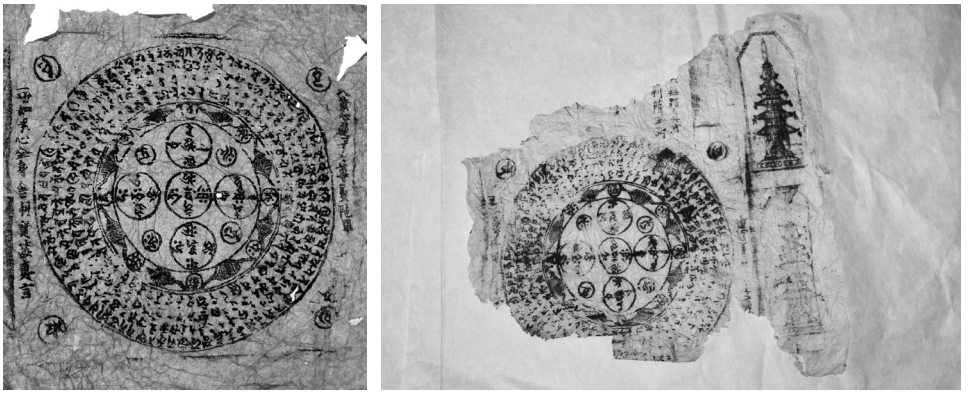


圖 5. 〈八葉心蓮三十七尊曼陁羅〉, 38.0×36.5cm

① 상동
② 상동 / 佛塔印
③ 상동 / 佛塔印 / 踏殺虫無罪眞言 唵地利日利薩黑專訶
④ 상동 / 玄悟(墨書)
⑤ 상동 / [墨書 四方佛 眞言種子]

이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①의 글씨와 만다라 도형을 중심으로 앞, 뒷장의 가장자리 여백에 塔像과 踏殺虫無罪眞言을 찍은 것이다. 일정한 형식이나 규칙은 없으며 일반적인 경우 질병을 물리치거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원이 많은 것에 비하여,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죄 없음을 비는 진언을 특별히 새겨 찍은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탑의 도상은 상륜부의 장식과 층마다의 옥개석 끝에 風鐸을 갖추고 기단부 위의 아래층에는 가슴에 '卍'자가 있는 부처로 보이는 좌상을 새겨두었다. 이 목판과 진언목판은 별개로 제작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찍어 사용하였다. 이른바 佛印으로 불리는 이러한 예는 이미 華嚴寺 석탑에서 중복으로 찍힌 예가 있었고 늦은 시기로는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황색천에 찍은 것도 알려져 있다.

전체 166장(탑 도상 포함된 7장)에 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 발끈 폭
- 탑 도상 有 : 4.9cm, 탑 도상 無 : 4.7~4.8cm
- 탑 도상의 다라니 수량 : 총 7장

• 다라니 부분별 치수
- 작은 원 반지름 : 3.5~4.5cm
- 작은 다라니 지름 : 32.8~33.4cm
- 바깥 테두리 : 24.2~26.7cm

• 샘플(1) : 보협인다라니(8엽문)
- 크기 : 38.0×36.5cm(23.4×26.8)
- 바깥 원 : 23.0cm / 중간 원 : 14.2cm / 안쪽 원 : 11.0cm
- 작은 5개 원 : 3.3~3.4cm
- 종이 발 촉수 : 16촉

• 샘플(2) : 보협인다라니(8엽문), 우측 상단에 보탑 문양 있음(圖 6;右)
- 원 크기는 샘플(1)과 동일
- 우측 상단 탑 크기 : 14.3×5.8cm
- 종이 두께 : 0.07~0.10cm
- 중앙에 "踏殺蟲無罪眞言 唵地利日利薩黑專訶"(크기 12.0×5.5cm)
- 종이 색차 : 탑 有 'L 78.1 / a+ 5.5 / b+ 16.7'
  황색지(진하게 인쇄된 것) 'L 72.6 / a+ 7.6 / b+ 22.0'

• 墨書 人名 : "玄悟(圖 6;左)", 좌측 하단, 혹은 우측 하단에 묵서, 전체 수량 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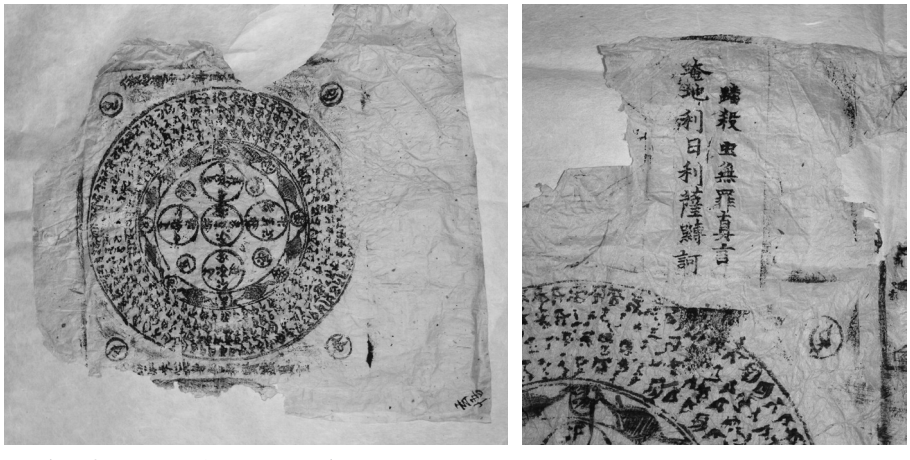


圖 6. 〈踏殺蟲無罪眞言 唵地利日利薩黑專訶〉, 12.0×5.5cm

• 金剛界 曼陀羅의 37尊[4] (圖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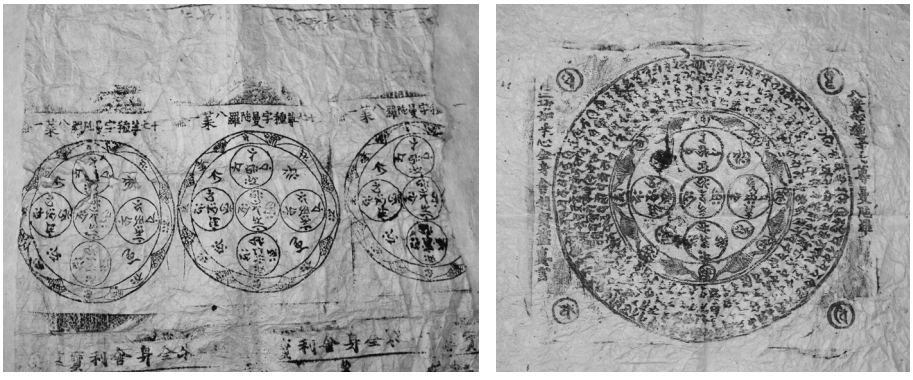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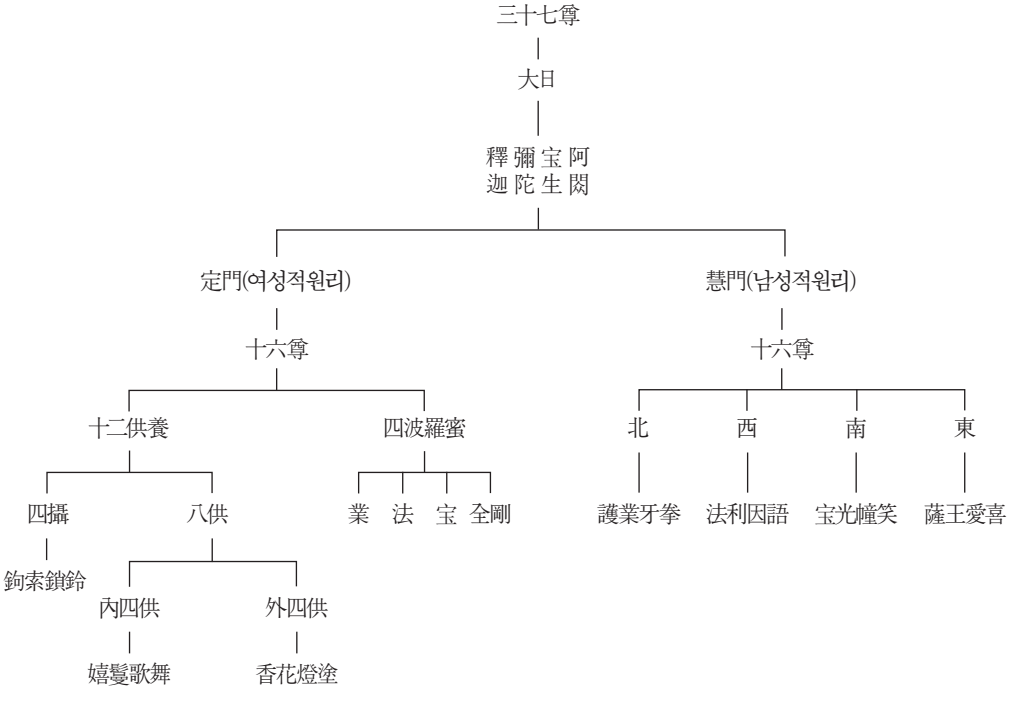


圖 7. 〈金剛界 曼陀羅의 37尊〉

〈37尊 圖式〉



4) 眞鍋俊照, 『曼荼羅の世界』(朱鷺書房, 1990), p. 97.

(2)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1239년) (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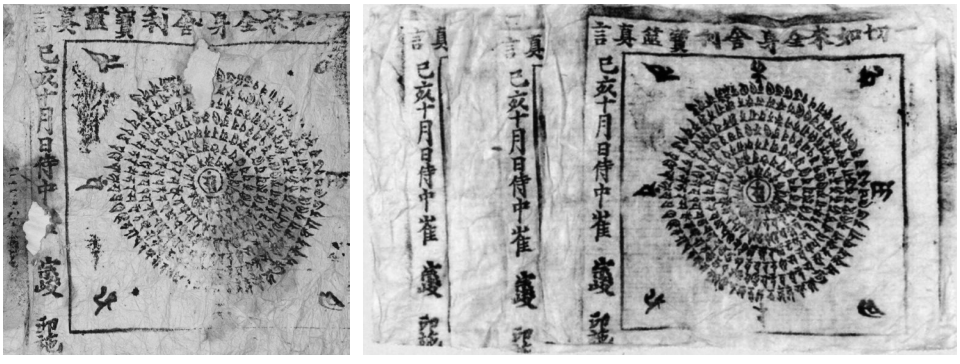


圖 8.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左)淸凉寺, (右)守國寺(腹藏陀羅尼)

① 목판, 크기 : 16.5×20.0cm
② 내용 : (상단제목)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③ 간기 : (좌단)'己亥十月 日 侍中 崔宗峻 印施'의 기록

이 기록과 관련하여 崔宗峻(~1249)[5]은 『東國輿地勝覽』 鐵原都護府 '人物條'에서 최씨 집안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고, 또 이 불상이 철원의 심원사에서 전래된 것임을 미루어볼때 불상 조성에 관여된 인물이라 추정된다. 최씨 가문은 무신정권과 대몽항쟁기간에 막강한 위치에 있었고 이후 철원(별칭 昌源)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집안으로 심원사의 중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守國寺 복장물 등을 통하여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다라니가 청량사의 불상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면 다른 금강계만다라와 보협진언이 합치된 것으로 1292년 다라니가 지역이 다른 몇몇 곳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당시 불교의식을 지원하던 중앙기관으로서 僧齋色과 같은 곳에서 인출하여 배포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대상 유물은 좌우가 파손되어 전체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한 장의 종이에 같은 진언목판의 상하 방향을 달리하여 인출한 것이다. 또 보협진언의 형태는 나선형으로 중앙의 비로자나불 종자 진언을 향해 감겨진 모습이며 인출시 지면의 여백을 두지 않아 부분적으로 겹쳐진 곳이 많다.

---

5) 최종준의 祖는 崔惟淸(1095~1174), 父는 崔詵으로 고종때의 문신이며 1201년에 문과 장원을 거쳐 吏部尙書, 門下侍中에 올랐다. 이 자료에 의하여 1239년에는 侍中의 자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1239년) / 三十七尊種字曼陁羅八葉一輪 (圖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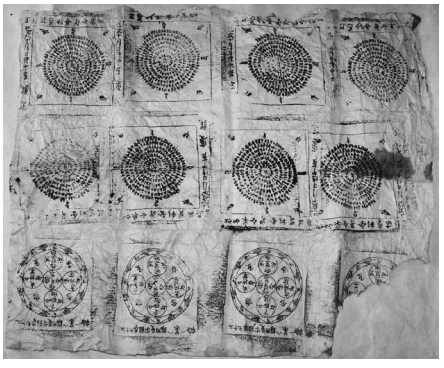


圖 9.〈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54.5×48.7cm

① 목판, 크기 : 16.5×20cm,
② 내용 :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3면)과 37존 만다라(3면)
③ 간기 :'己亥十月 日 侍中 崔宗峻 印施'의 기록
- 1장 9개 圖
- 크기 : 54.5×48.7cm
- 1개 다라니 크기 : 13.5×13.3cm

대상 유물은 좌우가 파손되어 전체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한 장의 종이에 같은 진언목판의 상하 방향을 달리하여 인출한 것이다. 상중하 3단중 상하는 보협진언의 형태로 나선형으로 중앙의 비로자나불 종자 진언을 향해 감겨진 태장계만다라의 모습이며 중단은 금강계만다라형태로 외곽에 中臺八葉圓을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大空點과 涅槃點이 표시된 37존을 배치하고 있어서 양부만다라를 동시에 수록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작은 목판에 새겨서 중복하여 여러 면을 인출할 때 지면의 여백을 두지 않아 부분적으로 겹쳐진 곳이 많다.

圖 10.〈十三眞言輪〉, 개심사 불복장 다라니

④ 상동 ;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8면)과 37존 만다라(4면)

대상 유물은 앞의 자료와 같지만 인출된 배열이 다르고 찍은 종이의 전체 크기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앞의 자료와는 달리 2단에 걸쳐 보협진언을 찍어 37존 만다라와 구분

하였지만 그 위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개심사 불복장 다라니로 1276년의 十三眞言輪에서도 확인이 된다(圖 10).

- [三十七]尊種字曼陀羅(최종준 별본 다라니)
- 낱장 2장
- 크기 : 큰 것 '54.5×65.0cm / 작은 것 : 54.8×?cm(훼손)
- 三十七尊種字曼陀羅 八葉一輪
- 크기 : 13.5×12.2cm
  바깥 원 '10.8cm', 중간 원 '9.0cm', 작은 원 '2.9cm'
  가운데 만다라 원 '10.3cm'

(4) 六字大明王眞言 / 圖像佛心呪 (圖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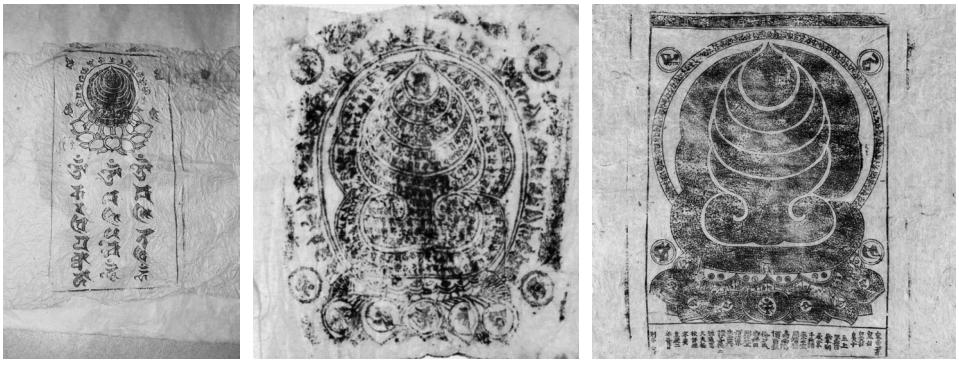


圖 11. 〈六字大明王眞言/圖像佛心呪〉, (左)淸凉寺, (中)守國寺, (右)1313년 宋英 發願 陀羅尼, 51.3×57.2cm

- 목판본, 낱장 3장
- 크기 : 51.3×57.2cm(안의 도상 46.3×23.5cm)
- 도상은 옴(아미타신주로 추정하기도 함), 명칭 불확실
- 발끈 폭 : 3.0cm / 발 촉수 : 12촉

이 자료는 상단에 중대팔엽원 위에 도상화된 부처를 안치하고 주위에 진언과 四方佛을 배치한 소형이 만다라 도형을 두고 아래에는 3줄로 '옴마니반메훔' 등의 실담자를 배치하고 있다. 지질과 인쇄 상태 등에 의하여 13세기경의 판각이라 추정된다.

2) 조선시대

(1) 大明神呪 [외] 26종 진언 (圖 12)

圖 12. 〈大明神呪 외 26종 진언〉, 29.8×154.6cm

- 白紙墨書, 진언의 제목은 한자, 내용은 한글음표기
- 낱장 1장(3장 점련), 크기 : 29.8×154.6cm
- 언어 : 한글 한문 혼용
- 시기 : 18세기 초
- 발끈 폭 : 1.5cm
- 내용 : 金剛波[]蜜菩薩眞言[羅] / 寶生波羅眞言] / 蓮花波羅蜜菩薩眞言 / 羯磨波羅蜜菩薩眞言 / 金剛根本波羅蜜菩薩眞言 / 阿閦佛眞言 / 寶生佛眞言 / 無量壽佛眞言 / 不空成就佛眞言 / 毗盧遮那佛眞言 / 東方焰曼恒迦大明王阿閦化身眞言 / 南方鉢羅 抳也恒大明王毘盧化身眞言 / 西方鉢納摩恒迦大明王寶生化身眞言] / 北方尾仡囊恒迦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 東南方口毛枳羅惹大明王不空化身眞言 / 西南方寧頁擺能拏大明王阿閦化身眞言 / 東北阿左擺囊化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 下方縛[曰羅]播多羅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 上方塢瑟抳灑作訖羅縛里帝大明王阿閦化身眞言 / 金剛手菩薩眞言 / 本尊隨求眞言 / 虛空菩薩眞言 / 地藏菩薩眞言 / 五吉祥草眞言 / 白傘盖眞言 / 不動尊眞言

(2) 朱書眞言과 幡 (圖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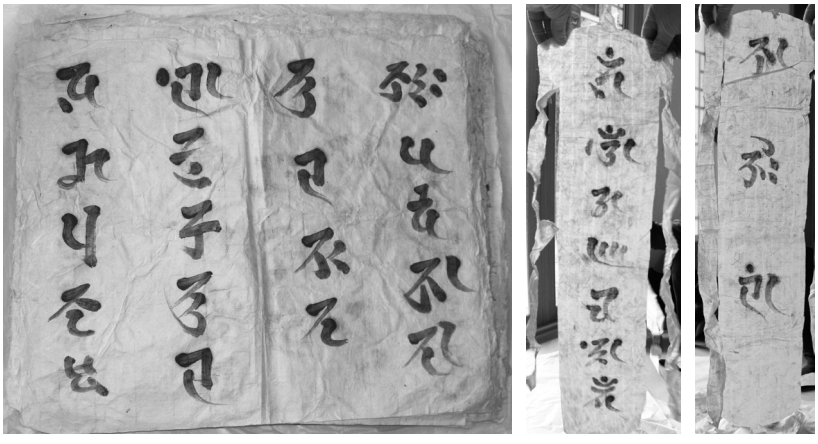


圖 13. 〈朱書眞言과 幡〉, 40.5×49.0cm

- 낱장 21장(꽃모양으로 접힌 문서도 1건 있음)
- 필사, 크기 : 40.5×49.0cm
- 꽃 모양 문서 : 19.5cm(펼치면 24~25cm으로 추정)
- 시기 : 조선 후기(18세기 경)

백지를 3등분하여 잘라서 번을 만들고 가운데 넓은 부분에 주서로 '옴, 훔, 옴마니반메훔' 등의 실담자 진언을 기록하였다.

2. 경전류

1) 고려시대

(1) 『金光明經』 卷2 (圖 14)

- 권자본, 백지묵서, 부분 2점(2권말 11행, 21행), 1행 18자
- 北涼三藏法師 曇無讖 譯, 권2의 '金光明經堅牢地神品 第九'에 해당함
- 발끈 폭 : 4.0~4.5cm / 발 촉수 : 15촉

曇無讖 번역의 이 책은 北涼時代(414~426)에 번역된 것으로 동일한 산스크리트어본에 대한 異譯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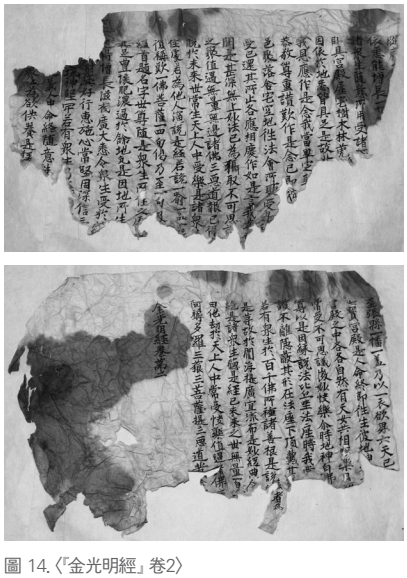


圖 14. 〈『金光明經』 卷2〉

전들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이며 전체 19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국경전으로 『仁王般若經』, 『法華經』과 함께 13세기에 주로 간행 유포되었고 관련 道場도 같은 시기에 設施된 예가 『高麗史』 등에 자주 보인다. 『金光明經』과 관련된 저작들은 義淨의 『金光明最勝王經』 10권, 寶貴의 『合部金光明經』 8권, 曇無讖의 『金光明經』 4권, 眞諦의 『金光明經』 7권, 耶舍崛多의 『金光明更廣大辯才陀羅尼經』 5권 등이 있다. 義淨의 『金光明最勝王經』 10권본을 新譯(703년)이라 하고 曇無讖의 『金光明經』 4권본을 舊譯이라 부른다. 이 중 寶貴의 『合部金光明經』 8권은 曇無讖, 眞諦, 耶舍崛多의 저작을 편집한 것이다.

이 경전들 중 再雕大藏經에 포함된 것은 『金光明最勝王經』(食函), 『合部金光明經』(場函), 『金光明經』(精函) 등이고 신라때부터 유통되었던 曇無讖 번역본은 초조대장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재조본에서 포함되었다.

복장에서 발견된 낙장부분들은 卷2의 '堅牢地神品 第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再雕大藏經과 대조하면 글자간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즉,

* 23~24장 〈재조대장경〉
〈교감내용〉 재조본 → 대상본

——————縱廣七千由旬豐
壤倍常.世尊,如是大地衆生所依,悉
能增長一切所須之物,增長一切所
須物已,令諸衆生,隨意所用,受[於]快　於 → 諸
樂,種種飮食衣服,臥具宮,殿,屋宅,樹
木,林苑,河池,井泉,如是等物,[依因]於　依因 → 因依
地,悉皆具足.是故世尊,是諸衆生爲
知我恩,應作是念:我當必定聽受是
經,供養恭敬,尊重讚歎.作是念已,卽
從住處,若城邑,聚落,舍宅,空地,往法
會所,聽受是經.旣聽受已,還其所止,
各應相慶作如是言:「我等今者,聞[此]　此 → 是
甚深無上妙法,已爲攝取不可思議
功德之聚,値遇無量無邊諸佛,三惡
道報已得解脫,於未來世,常生天上
人中受樂.是諸衆生各於住處,若爲
他人,演說是經,若說一喩,一品,一緣,
若復稱歎一佛,[一]菩薩,一四句偈乃　一 →[없음]
至一句,及稱是經首題名字,世尊,隨
是衆生所住之處,其地具足豐壤肥
濃過於餘地,凡是因地所生之物,悉
得增長滋茂廣大,令諸衆生,受於快
樂,多饒財[寶],好行惠施,心常堅固深　寶 → 貸
信三寶」
爾時,佛告地神堅牢:「若有衆生,乃至
聞是金光明經一句之義,人中命終,
隨意往生三十三天.地神,若有衆生,
爲欲供養是經

* 24~25장
——————————至
張懸一幡、一蓋及以一衣,欲界六天
已有自然七寶宮殿,是人命終,卽往
生彼.地神,於諸七寶宮殿之中,各各
自然有七,天女[ ]共相娛樂日夜,常受　[ ] → 七
不可思議微妙,快樂爾時,地神白佛

言:「世尊,以是因緣,說法比丘坐法座
時,我常晝夜衛護不離,隱蔽其形,在
法座下,頂戴其足.世尊,若有衆生,於
百千佛所,種諸善根,是說法者爲是
等故,於閻浮提,廣宣流布是妙經典,
令不斷絕.是諸衆生聽是經已,未來
之世無量百千那由他劫,於天上人
中,常受快樂,値遇諸佛,疾成阿耨多
羅三藐三菩提,三惡道苦
金光明經卷二

⑵ 初雕大藏經『大般若波羅蜜經』권제269, 17행(十九)/6행[20] (圖 15)

圖 15.〈初雕大藏經『大般若波羅蜜經』〉

- 목판본, 낱장 1장, 좌우측 훼손
- 크기 : 27.5×?cm(훼손) / 廣高 : 21.8×?cm(훼손)
- 발끈 폭 : 4.6cm(발 끈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음)
- 두께 : 0.13~0.16cm

* 20~21장
淨四無所畏乃至十八佛不共法淸
淨故四神足淸淨何以故若一切智
智淸淨若四無所畏乃至十八佛不
共法淸淨若四神足淸淨無二無二
分無別無斷故善現一切智智淸淨
故無忘失法淸淨無忘失法淸淨故
四神足淸淨何以故若一切智智淸
淨若無忘失法淸淨若四神足淸淨
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一切智智
淸淨故恒住捨性淸淨恒住捨性淸
淨故四神足淸淨何以故若一切智
智淸淨若恒住捨性淸淨若四神足
淸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善現 제18장 25행

제19장
一切智智淸淨故一切智淸淨一切 제19장 1행
智淸淨故四神足淸淨何以故若一
切智智淸淨若一切智淸淨若四神
足淸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一
切智智淸淨故道相智一切相智淸 낙장된 부분 5행
→ 淨道相智一切相智淸淨故四神足
→ 淸淨何以故若一切智智淸淨若道
→ 相智一切相智淸淨若四神足淸淨
→ 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善現一切
→ 智智淸淨故一切陁羅尼門淸淨一
→ 切陁羅尼門淸淨故四神足淸淨何
———————————
→ 以故若一切智智淸淨若一切陁羅
→ 尼門淸淨若四神足淸淨無二無二
→ 分無別無斷故一切智智淸淨故一
→ 切三摩地門淸淨一切三摩地門淸
→ 淨故四神足淸淨何以故若一切智
→ 智淸淨若一切三摩地門淸淨若四
———————————
→ 神足淸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
→ 善現一切智智淸淨故五流果淸淨
→ 預流果淸淨故四神足淸淨何以故
→ 若一切智智淸淨若預流果淸淨若
→ 四神足淸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

→ 故一切智智清淨故一來不還阿羅 → 故善現一切智智清淨故獨覺菩提

——————————————— → 清淨獨覺菩提清淨故四神足清淨

→ 漢果清淨一來不還阿羅漢果清淨 何以故若一切智智清淨若獨覺菩

→ 故四神足清淨何以故若一切智智 제19장 25행 提清淨若四神足清淨無二無二分

→ 清淨若一來不還阿羅漢果清淨若 제20장 1행 無別無斷故善現一切智智清淨故

→ 四神足清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 一切菩薩摩訶薩行清淨一切菩薩

위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조대장경『大般若經』권제269와 재조대장경을 대조하면 재조본은 23행인 것에 비하여 초조본은 1장에 25행이 들어가서 장의 길이가 달라진다. 따라서 연결된 張들간의 위치가 재조본과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상은『華嚴經』에서도 같아서 일반적으로 23행일때는 가로 폭이 46~47cm정도이나 25행일 때는 53~54cm정도로 늘어나 있다. 즉『대반야경』이나『화엄경』은 경의 분량이 많아서 저본을 달리 작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 대상 자료 간의 교감에서 달라진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로 볼 때 구겨진 부분이 많아 처음의 인출, 제본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6줄 단위로 세로 직선으로 추정되는 접힌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초조본의 절첩형태로 추정된다. 즉 11세기에 조성된 초조대장경의 국내 현존본들은 대부분 권자본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형태적 관점으로만 검토하면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반의 인출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본과 권차는 일본 對馬島 대마역사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필사본 중에 일본 壹岐島 安國寺에 소장되었다가 1994년에 도난된 것이 있다.

⑶『慈悲道場懺法』卷9 제14, 15장 (圖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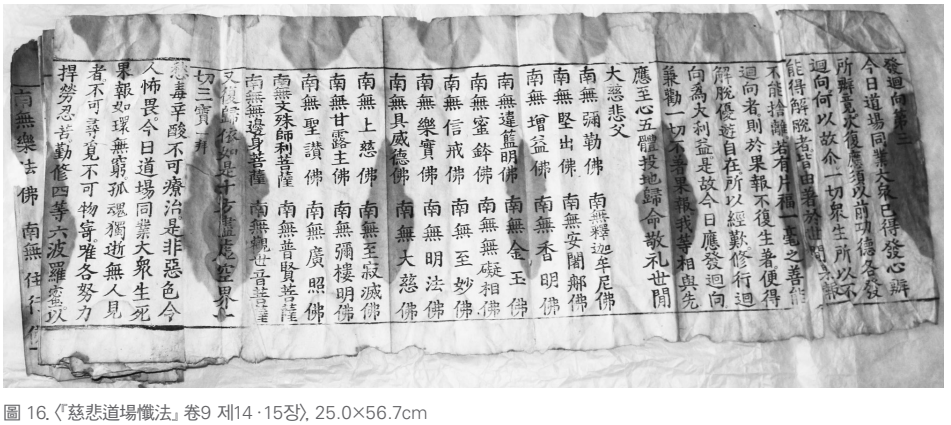


圖 16.《『慈悲道場懺法』卷9 제14·15장》, 25.0×56.7cm

- 절첩본, 목판본, 1장 4면, 1면 5행 13자
- 낱장 1장, 내용 : 發廻向 第三
- 크기 : 25.0×56.7cm / 광고 : 33.8×56.7cm
- 1면의 폭 : 13.9cm
- 장차별로 순서대로 연결이 아니라 남은 잔존 부분을 조각으로 연결함

이 부분은 권제9중의 '爲丑生道礼佛第七'이며, 여러 판본이 있으나 그 중 至元19年(1282)에 경주에서 간행된 일본 南禪寺 소장본과 비교하면 장차의 순서가 맞지 않고 교감을 해도 남선사본의 '明', '歸' 등이 달리 '明', '歸'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록 시대는 비슷하지만 판본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5장 (제2면) 9행[ie, 남선사본에서는 제13장 7행]의 '南無無[嬈, 마지막획 생략]佛'이 남선사 판본에는 '南無無嬈佛'로 피휘가 나타나지 않는 점도 차이를 보인다.

2) 조선시대 : 『金剛般若波羅密經』[諺解] (圖 17)

- 목판본(刊經都監本), 36장, 표지 및 본문의 앞뒤 進箋文 등 훼손
- 四周雙邊, 有界, 8행 (대,중,소) 19자,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권수면 : 金剛般若波羅密經六祖解序
- 권수제 : 金剛般若波羅密經
- 크기 : 31.3×21.0cm(21.1×14.6cm)
- 한글, 註 언해
- 발끈 폭 : 3.0cm / 발 촉수 : 14촉

圖 17.『금강경언해』, 31.3×21.0cm

이 책은 석가모니가 舍衛國 祇樹給孤獨園에서 須菩提 등 제자들을 위하여 境界의 空, 慧의 空과 菩薩空을 밝힌 것으로서, 空慧로 體를 삼고 一切法 無我의 이치를 설한 것이다.

책의 번역과 간행과정 중 『金剛經諺解』는 鳩摩羅什이 漢譯한 『金剛經』의 본문과 六祖 慧能의 解義에 조선시대에 들어 世祖가 구결을 달고 韓繼禧가 번역하고 孝寧大君과 判敎宗事 海超 등이 교정하여 세조 10년(1464)에 刊經都監에서 간행되었다. 간행과 관련된 사실과 동기는 黃守身의 '金剛經心經箋'과 해초 등의 발문,

그리고 권말의 '飜譯廣轉事實'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462년 9월, 세조의 꿈에 선대왕 세종이 나타나고, 또 요절한 懿敬世子도 만났으며, 中宮도 꿈에 세종이 이룩한 불상을 보았다는 사실에 세조가 감격하여 돌아간 이의 명복을 빌고, 애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금강경을 번역한 것이다.

책의 편찬 양식은, 경의 본문은 큰 자로 行의 첫머리부터 시작하고, 六祖의 解義는 한 글자 내려서 중간자로 썼으며, 각각의 언해는 단락이 끝나면 ○표를 하고 두 줄의 작은 자로 썼다. 앞부분의 '六祖解序'나 後序, 跋文 등은 중간자이고, 구결은 언해와 같은 작은 자로 기록하였다. 언해의 한자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주음했으며, 어려운 한자어나 불교 용어에는 협주를 달았는데 처음과 끝부분에 각각 어미 표시를 하였으며, 협주가 언해의 단락 끝에 놓일 경우에는 끝 표시를 줄였다. 방점은 한문의 정음 구결에는 쓰이지 않고 언해문에만 사용되었다.

이 책의 간경도감판 원간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간본 계통의 후쇄본과 번각본 등이 전해지고 있지만 대상의 판본는 원간본과 거의 같은 시기의 인출본으로 추정된다. 전해지는 현존본으로 볼 때 선조 8년(1575) 전라도 安心寺에서 간행된 번각본 등이 전하고 있어서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 중 원간본 계통의 연산조본(홍치 8년 1495)은 원간본 계통의 후쇄본으로 單卷이며, 보물 제771호로 지정된 연산조본 계통의 간년 미상 卷下 1책이 규장각 일사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또 번각본류중에 安心寺本(선조 8년, 1575)으로 권말의 간기에 '萬曆三年乙亥全羅道高山雲梯縣大雄山報恩慈福安心廣濟院重刊留鎭'이라는 기록이 있다.

3. 문서류

1) 別請 (圖 18)

- 백지묵서, 2매 접련
- 제1장(別請) : 27.7×28.6cm
- 나머지 제2장 : 30.8× 21.0cm
- 발끈 폭 : 1.8cm
- 본문 : 海岸高絶處宝多羅迦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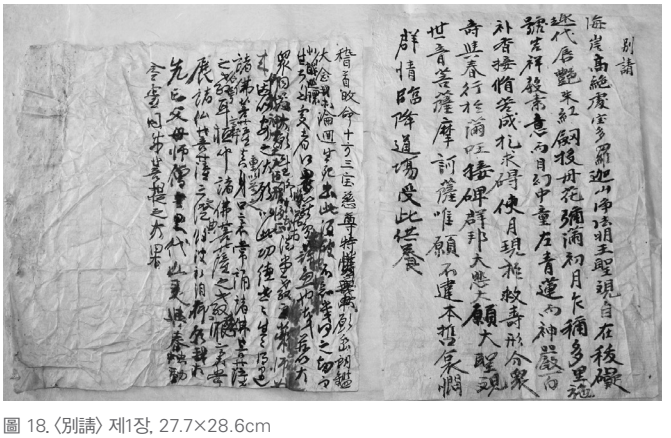


圖 18. 〈別請〉 제1장, 27.7×28.6cm

2) 千人同發願文(1560년) (圖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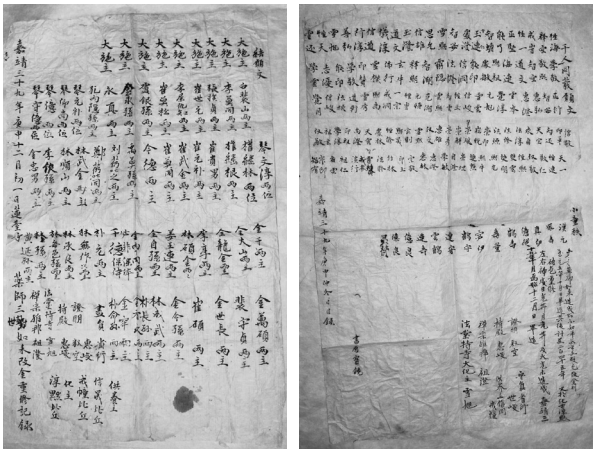


圖 19.〈千人同發願文과 結願文〉

- 필사본 3장
- 1장 : 시기, 嘉靖39년 / 크기 : 66.8×42.0cm
- 2장 크기 : 66.1×41.9cm
- 3장 : 시기, 康熙54년 / 두께 : 0.11~0.12cm / 발끈 폭 : 2.5cm

……

東方藥師如來造成卽不知年數
年久破色改金則」
至元五年十月日畢造其後計數
二百四十五年 又於化士淳默」
破色重修」
左右補處日光菩薩月光菩薩及火
光等造成」
嘉靖三十九年十月爲始 十二月日 畢造」
證明 釋空」 持殿 惠峻」 禪宗維那 祖澄」 法堂持寺大化主 雪旭
畵員 省衍」 世峻」 供養主 信冏」 戒幢」
書寫 寶鏡」
嘉靖三十九年庚申仲冬日目錄」

이 자료는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단과 중단에는 약사상의 수리와 개금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약사상의 조성과 개금의 경위가 쓰여 있다. 이로써 이 불상은 최소한 지원 5년과 가정 39년(1560) 두 차례 이상 개금, 중수한 사실이 있었고 1560년에는 淳默이 중심이 되어 일광, 월광의 좌우보처 보살상과 광배를 만들어 약사여래삼존으로 조성하였다. 이 문서에는 불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의 목록과 중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3) 結願文(1560년)

앞의 千人同發願文과 관계가 있고 관련된 사람들의 인명록이다.

……

畵員 省衍」 惠峻」 證明 釋空」 持殿 惠峻」 法堂持寺 雪旭」 禪宗維那 祖澄」

供養主」 信星比丘」 戒幢比丘」 化主」 淳默比丘」
嘉靖三十九年庚申十二月初一日蓮臺寺 藥師三世如來改金重修記錄」

4) 發願文(1715년) (圖 20)

1715년에 약사여래와 좌우보처에 대한 개금과 중수에 대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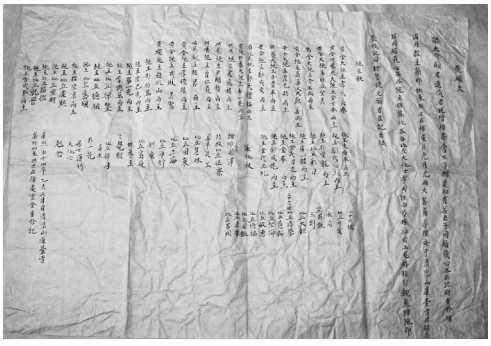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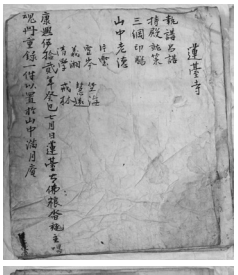


圖 20.〈發願文〉

聞夫發願者造成者現增福壽當生淨刹是以有善
君子同願發心各出珎財重修補/
滿月教主藥師如來與左右補處日光月光兩大菩
薩尊像安于淸凉山蓮臺寺共結良/
緣同願發心各各施主與緣化各各比丘大化士等
同往西方極樂國土見佛接引親見彌陁卽/
蒙授記同證菩提之願者玆記后祿/ ……
康熙五十四年乙未六月日 淸凉山蓮臺寺/
藥師如來與左右補處塗金重修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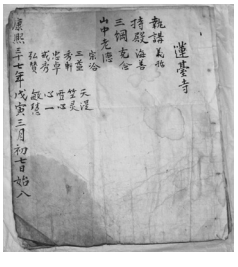


圖 21.〈佛粮畓施主目錄〉, 36.5×30.5cm

5) 佛粮畓施主目錄(1698년) (圖 21)

- 寫本 1점, 37.5×32.5cm, 1면 12행
- 蓮臺寺 執講 義哲 ……
- 필사기 : 康熙三十七年戊寅三月初七日始入
- 시주자 직함, 이름순으로 필사

6) 佛粮畓施主目錄(1713년) (圖 21)

- 寫本 1점, 36.5×30.5cm
- 蓮臺寺 執講 呂諶 ……
- 康熙伍拾貳年癸巳七月日蓮臺寺佛粮畓施主唱魂丹重錄一件
- 以置於山中滿月庵
- 시주자 직함, 이름순으로 필사

7) 叢林寺刹四名日迎魂規 (圖 22)

- 1책, 필사본 낱장
- 크기 : 37.5×32.3cm
- 종이 발끈 폭 : 2.0cm
- 내용 : 破地獄眞言, 滅惡趣眞言, 普召請眞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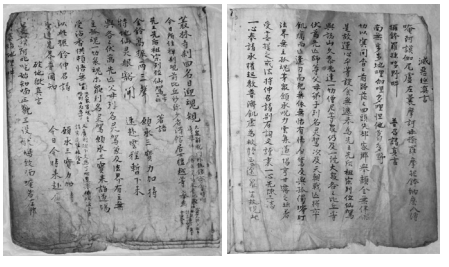


圖 22.〈叢林寺刹四名日迎魂規〉, 37.5×32.3cm

8) 기타 기록 : 臺座墨書(1734년)

雍正十二甲寅秋七月……龍席造成記 ……

IV. 文殊菩薩像 腹藏內 陀羅尼와 文獻

1. 다라니류

1) 고려

(1) 十眞言 (圖 23)

圖 23.〈淸凉寺 十眞言〉, 10.1×11.8cm

圖 24.〈위덕대 소장 二十二眞言 四角陀羅尼〉

- 목판본, 10장, 정법계진언부터 10진언
- 완전한 것 12장,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 11건
- 시기 : 고려시대(14세기로 추정)
- 紙高 : 10.1×11.8cm
- 검은선 외곽 : 7.8×10.5cm, 검은선 내선 : 6.3×9.1cm
- 종이 발촉수 : 15촉
- 내용 : 淨法界, 大佛頂心, 彌陁心, 六字大明, 寶樓閣, 准提, 不空罥索, 決定往生淨土, 甘露水, 破地獄 已上十眞言 合部願結 因此法 一切有情 皆生西方淨土

이상의 10가지 진언을 합하여 이 법으로 일체의 사람들이 모두 서방정토에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원으로 만들어진 다라니이다. 그 형태는 앞부분에는 12줄(1줄당 22자)에 걸쳐 실담자 진언을 배치하고 아래 3줄에 걸쳐 한자로 진언의 제목과 발원문을 약기하고 있다. 다만 그 배열이 좌나 우로의 한 방향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로 배열된 점에서 특이하다. 바깥은 가는 테두리에 이어 실담자 2자 정도의 넓은 테두리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들 진언 중에서 六字大明, 寶樓閣, 決定往生淨土呪의 경우는 修禪社의 5대 주지였던 圓悟國師 天英의 父인 梁宅椿(1172~1254)의 묘지명에도 上品上生眞言과 함께 梵字로 기록한 경우도 있고 1302년 아미타불 복장 다라니 등에서도 나타나 현세의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납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五大眞言/五小眞言(胎藏界 曼陁羅形) (圖 25)

- 목판, 18장
- 시기 : 13세기
- 크기 : 광곽 29.1cm / 양각(안) 28.7cm / 문자 부분 13.6cm(반경)
- 종이 발끈 폭 : 4.8cm / 발 촉수 : 14촉 / 두께 : 0.05~0.07cm
- 형태 : 실담자 원형, 외곽원 사방불종자진언, 중심에는 도상'옴'자
- 우측 하단부에 시주자 기록 : '安東判官 徐瓚 作環廣施 次刻 日藏'
- 우측에서 좌측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31층의 원으로 배열
- 제목 : 좌상단에서 '五大眞言五小眞言'으로 시작하여 점차 중심으로 말린 상태
- 실담자 방향 : 원의 바깥을 향학고 있으므로 '自利'에 대응하는 '利他'형임
- 白紙, 사각(12면)으로 접어서 복장되었음

圖 25. 〈五大眞言/五小眞言〉

종이의 지질과 발 폭, 발끈 폭 등을 볼 때 전형적인 13세기 경의 고려 종이로 추정된다. 또 발원한 사람은 安東판관 徐瓚으로 利川徐氏의 족보에서 확인되는 고려인으로 시조로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6]

徐神逸 - 弼 - 熙 - 訥 - 실명 - 俊邦
- 惟傑 - 靖 - 鈞 - 諄 - 偉 - 冕 - 嶙 - *瓚 - 甄 - 勖 ──

6) 朴能緖 編, 『韓國系行譜』 人(寶庫社, 1992), pp. 2216~2218.

이 서찬의 활동시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주변 인물들의 행적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부인은 추밀원부사를 지낸 許遂의 딸인 까닭에 같은 동기간인 허수의 아들 許珙이 1258년 평장사 崔滋의 문하에서 병과로 과거에 급제하고 1279년 경상도지휘사, 1284년 修國史로 『古今錄』을 편찬하고 1290년 홍자번과 함께 수도를 수비하였으며 1310년 충렬왕의 묘정에 배향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徐瓚은 13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인물로 비정할 수 있다.

또 그의 아들 徐甄은 安珦의 문인으로 공민왕때 과거에 들어 1391년 사헌장령을 지냈으며 공양왕때 조준과 정도전을 탄핵하다가 유배를 당하고 조선 개국후에는 衿川으로 퇴거하였다. 그는 元天錫, 范世東과 문답하여 『東方斯文淵源錄』을 저술하고 『華海師全』 등을 편찬한 문신이었다. 즉 그의 처가 인물과 자손의 행적으로 추론해 볼 때 이 다라니에 기록된 인물로 비정할 수 있고 다만 조선초에 『大明律直解』를 목활자로 찍어낸 徐贊과는 이름도 다르고 출신과 활동시기도 다르다.

한편 판관의 벼슬은 고려시대 여러 중앙관부에 소속된 5~9품까지의 품계를 가지거나 고려나 조선초기의 지방관직으로 州, 府의 소재지에서 장관소속으로 民政의 보좌역할을 하였다. 또 『拙藁千百』 권2의 '全柏軒 墓誌'에 1307년(충열왕 33) 安東府判官이 되었다거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任益惇 墓誌銘'에도 1212년(康宗 1) 安東大都護府判官이 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현존하는 安東府先生案은 1308년 이후의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어 13세기 중반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徐瓚은 확인할 수 없다.

내용상 五大眞言은 당나라 不空이 번역한 大悲心陀羅尼, 根本陀羅尼, 隨求陀羅尼, 大佛頂陀羅尼와 佛陀波利가 번역한 佛頂尊勝陀羅尼를 합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五大眞言은 한문, 실담자, 한글음 등이 병기되어 나타나며 그 판본중의 한문본은 고려시대부터 간행되어 유통되었고 현존하는 고려본은 절첩의 목판본으로 한 면에 6행 13-14자본과 15자본의 두 종류가 알려져 있다. 특히 四十二手眞言 부분에서는 제목에 이어 개별 진언의 설명과 더불어 도판이 위에 제시되고 아래에는 진언이 수록되어 있다.

반면 조선시대에 간행된 『五大眞言』은 1485년(성종 16)에 인수대비의 명으로 간행된 것으로, 당시 가장 많이 신앙되고 독송되었던 다라니 다섯 종류를 한데 묶어 한 책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다라니와 같이 '五小眞言'이라 표기된 자료나 문헌은 찾기가 어려워 어떤 진언을 지칭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각종 진언류와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다라니에서 오대진언을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2) 조선

⑴ 白紙朱書眞言類 (圖 26)

- 3장(붉은 글씨)
- 제1장 : 크기
  32.3×40.1cm /
  발끈 폭 :
  2.2~2.5cm
- 제2장 : 크기
  34.4×41.3cm
- 제3장 : 크기
  32.6×39.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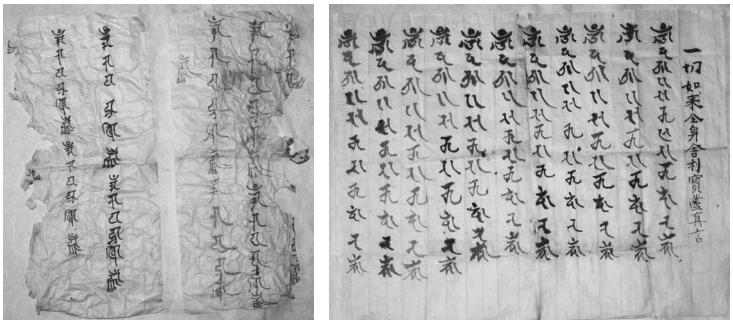


圖 26.〈白紙朱書眞言類〉

⑵ (朱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 11행(같은 내용의 중복) 6매, 18세기경
- 크기 : 34.1×40.9cm

2. 경전

1) 고려

⑴『佛頂心觀世音菩薩大陁羅尼經』卷上 (圖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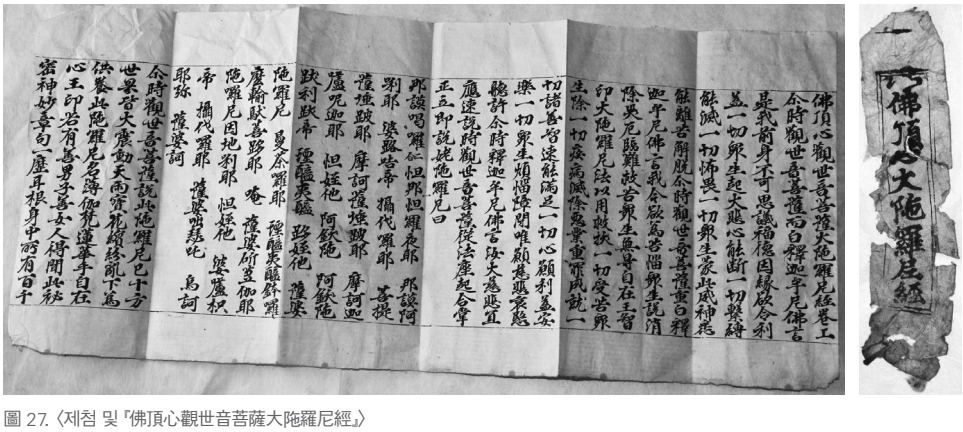


圖 27.〈제첨 및『佛頂心觀世音菩薩大陁羅尼經』〉

- 寫本(白紙墨書), 절첩본 1장, 1면 5행 15자, 전체 6면 30행
- 시기 : 12~13세기

- 크기 : 23.4×56.9cm(광고 16.4cm) / 1면 폭 : 9.2cm
- 종이 발끈 폭 : 4.5~5.0cm / 발 촉수 : 12촉 / 두께 : 0.08~0.09cm
- 題籤 : '(開法藏眞言) 佛頂心大陁羅尼經' 목판, 二重邊欄
- 제첨 : 세로 19cm, 폭 4cm, 종이 11.8cm

(2) 『法界觀式抄』 三 (板尾題), 十二, 十三, 十四, 6행 紙片 (圖 28)

- 목판본, 권자본 3장, 상하변란, 27행 20자
- 대각국사 의천이 편찬한 敎藏
- 권3의 12, 13, 14장, 이외 殘片
- 발끈 보이지 않음, 발 촉수 : 15촉
- [13장의 경우]
  크기 : 30.5×55.0cm /
  광고 : 23.9×55.0cm
  두께 : 0.07cm
  색차 : L 68.9, a+ 7.6, b+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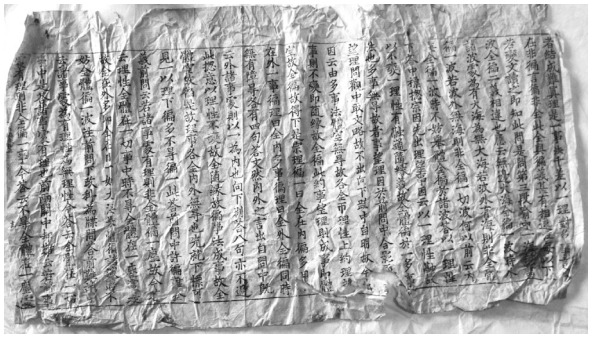


圖 28. 〈『法界觀式抄』〉, 30.5×55.0cm

이 경전의 板尾題와 같은 서명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접한 제목으로는 '華嚴法界觀門'이 있지만 내용이 같지 않고 원효의 전하지 않는 저서중 '華嚴經入法界品抄' 2권이 있으나 대상본은 제3권이므로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미제와 유사한 서명을 찾는다면 宋版本으로 杜順(당)이 찬하고 宗密이 注를 단 '法界觀[ ][ ] 卷'이라는 책이 중국 山西省博物館에 권13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일치여부는 알 수 없다.[7]

그러나 서명과 저자를 표현하는 교장서명의 특성으로 추론해볼 때 '법계관식초'는 遵式이 주석한 4권 분량의 『법계관문식초(法界觀門式抄)』의 줄인 서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문헌의 존재여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기서 처음 확인되는 고려시대 교장 자료인 것이다.

판식의 형태로 볼 때 海印寺의 寺刊板殿에 소장된 元曉의 '十門和諍論' 상권 5판(잔여판)과 크기(匡高 23.5, 全匡 55cm), 서체, 행자수(27행 20자), 판미제의 형태와 위치로 비교할 때 거의 일치하므로 이와 관련된 장소, 시기, 판각동기 등이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종이의 형태

7) 山西省博物館, 『中國古籍總目』 子部 第7卷(中華書局, 2013), p. 3354.

면에서도 발끈이 보이지 않고 권자본의 형태에 훼손되지 않은 부분의 지질은 도침이 잘 된 고려시대의 것과 유사하고 義天 당시부터 章疏의 간행이 많아지고 遼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으므로 12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⑶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卅九 ; 권말제에 의함 (圖 29)

圖 29.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卅九》, 28.8×48.3cm

- 般若(唐) 譯, 40권본 華嚴經중 권제39,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 寫本(白紙墨書), 광택이 나는 도침이 우수한 종이
- 권자본 2장, 28행 [18자], 軸은 없어짐
- 시기 : 12세기 말~13세기 초
- 두께 : 0.04~0.05cm
- 크기 : 48.3cm(紙高 28.8×48.3cm, 字高 21.7cm)
- 寫經體, 우하단부 일부 파손
- 글자(이체자) 光明 ; 光朋

재조대장경의 내용을 대상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재조대장경〉
〈교감내용〉 재조본 → 대상본
令諸王子采女衆 悉皆授化奉修行
或作護世四天王 或作夜叉龍等主
各爲其衆而說法 一切皆令大欣慶
或作忉利大天王 住善法堂歡喜園
首戴[華]冠說妙法 諸天覲仰無能測 華 → 花
或住夜摩兜率天 化樂自在[魔王所] 魔王所 → 有[ ][ ]
居處摩尼寶宮殿 說眞實行令調伏
或至梵天衆會中 說四無量諸禪道
普令歡喜便捨去 而莫知其往來相
或至阿迦尼[咤]天 爲說覺分諸寶[華] 咤 → 吒
華 → 花
及餘無量聖功德 然後捨去無知者

如來無[礙]智所見 其中一切諸衆生 礙 → 导
悉以無邊方便門 種種教化令成[熟] 熟 → [耽?]
譬如幻師善幻術 現作種種諸幻事
佛化衆生亦如是 爲其示現種種身
如淨月輪在虛空 令世衆生見盈缺
一切河池現影像 所有星宿奪光色
如來智月出世間 亦以方便示增減
菩薩心水現影像 二乘星宿無光色.
譬如大海寶充滿 淸淨無濁無有邊
四洲所有諸衆生 一切於中現其像.
佛身功德海亦爾 無垢無濁量無邊
乃至法界諸衆生 靡不於中現其像.
譬如淨日放千光 不動本處徧十方
佛日光明亦如是 無去無來除世[闇] 明 → 明
闇 → 暗
譬如龍王降大雨 不從身出及心出
而能霑洽悉周[徧] 滌除炎熱使淸[涼] 徧 → 遍
涼 → 淨
如來法雨亦復然 不從於佛身心出
而能開悟諸含識 盡能滅除三毒火
如來淸淨妙法身 一切三界無倫[匹] 匹 → [ ]
超出世間言語道 本性非有亦非無
雖無所依無不依 如是無來亦無去
如空如日亦如夢 當於佛體如是觀.
三界有無一切法 不能與佛爲譬諭
譬如山林鳥獸等 無有依空而住者.
大海摩尼無量色 佛身差別亦復然
如來非色非非色 隨應而現無所住.
虛空眞如及實際 涅槃法性寂滅等
唯有如是眞實法 可以顯示於如來.
刹塵心念可數知 大海中水可飮盡
虛空可量風可繫 無人能說佛功德.
若有聞斯功德海 能生歡喜信樂心
如所[偶]揚悉當得 愼勿於此生疑念 偶 → 稱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九

즉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대상본은 再雕大藏經을 저본으로 필사한 것은 아니며 당시에 유통되던 寺刹本이나 사본에 의거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종이의 지질이나 글자의 서체면에서도 다분히 12~13세기초의 사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조선

(1) 『妙法蓮華經』 卷5~7, 鳩摩羅什 譯 2질 (圖 30)

- 목판본, 선장본, 四周單邊, 有界, 8행 13자, 上下大黑口上下內向黑魚尾

圖 30. 〈『妙法蓮華經』 卷5~7〉, 鳩摩羅什 譯 2질

- 刊經都監 刻手 張莫同 등이 1470년 새긴 판을 번각한 판본임
- 크기 : 31.3×19.8cm(광고 22.6×15.9cm)
- 발끈 폭 : 2.3cm
- 16세기 후반 인출
- 앞뒤표지 낙장, 김수온 발문 없음, 부분 파손

(2) 『妙法蓮華經』 卷1의 제1장, 鳩摩羅什 譯

- 목판본, 선장본, 四周單邊, 無界, 7행 [ ]자
- 天順年間 孝寧大君 施主 版本

(3) 『妙法蓮華經』 卷5~7, 戒環 解 (圖 31, 左)

- 목판본, 선장본, 四周單邊, 10행 20자, 판심제 '法'
- 底本跋文 : 成化十三年(1477) 丁酉 …… 成達生 謹跋
- 刊記 : 嘉靖四十(1561)辛酉正月日 慶尙道豊基地[小白山] 叱方寺開板
- 6권 크기 : 27.5×17.4cm(광고 19.3×13.2cm)

(4) 『妙法蓮華經』 卷1~3, 戒環 解 (圖 31, 右)

- 목판본, 선장본, 四周單邊, 10행 20자, 판심제 '法'
- 15세기 후반 刊印, 成達生書體系列
- 권2 크기 : 29.3×16.2cm(광고 21.8×12.8cm)
- 발끈 폭 : 3.6cm / 발 촉수 : 20촉, 두께 : 0.06cm
- 당시 많이 사용되었는 얇은 미색의 印經紙

圖 31. 『妙法蓮華經』, 29.3×16.2cm

V. 맺음말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청량산 청량사의 건칠약사여래불 등에서 확인된 복장유물을 대상으로 특히 연대사의 역사적 배경기록을 조선시대 문집을 중심으로 망라적으로 살펴보고 복장물중의 인쇄나 필사된 다라니와 전적자료를 시기별로 형태서지학적 관점으로 다루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건칠약사불의 복장 시기는 내부의 발원문에 의하여 고려 13세기, 조선시대 중 1560년과 1715년에 걸쳐 개금과 중수가 이루어졌다.

둘째, 복장물중 다라니는 八葉心蓮三十七尊曼陁羅와 一切如來心全身事理寶篋眞言을 중심으로 한 낱장상태의 고려 다라니와 여기에 佛塔印과 踏殺虫無罪眞言이 찍혀져 있는 몇 장과 이를 시주한 인물로서 '玄悟'가 묵서된 일부가 있었다. 또 1239년 판각으로 추정되는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와 三十七尊種字曼陁羅八葉一輪은 그 간기가 '己亥十月 日 侍中 崔宗峻 印施'의 기록으로 守國寺에서 발견된 다라니와 같은 것이다. 그밖에 六字大明王眞言이 포함된 圖像佛心呪가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당시 僧齋色에서 불사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전적자료는 낱장이거나 파손된 것이 많지만 고려시대의 北涼三藏法師 曇無讖이 번역한 『金光明經』 권2, 初雕大藏經 『大般若波羅蜜經』의 권제269, 17행(十九)/6행[20]과 『慈悲道場懺法』, 卷9의 제14, 15장이 있다.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간경도감본 『金剛般若波羅密經』[諺解] 36장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문서류로는 16세기 복장시의 발원문과 18세기초 개금중수시의 문서가 있어 別請, 千人同發願文(1560년), 結願文(1560년), 發願文(1715년), 佛粮畓施主目錄(1698년), 佛粮畓施主目錄(1713년), 叢林寺刹四名日迎魂規와 기타 기록으로 臺座墨書(1734년) 등이 있다.

다섯째, 문수보살 복장물로 고려시대의 목판 인출인 十眞言과 五大眞言, 五小眞言이 있고 조선시대의 朱書 보협인다라니경 등이 있다.

여섯째, 전적류로는 고려시대 필사본 낱장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陁羅尼經』 卷上과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卅九는 般若(唐) 번역본으로 40권본 『華嚴經』중의 권제39로서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에 해당한다.

또 『法界觀式抄』 三(板尾題)의 十二·十三·十四장 및 6행 紙片은 목판본이며 敎藏의 일부분으로 추정되지만 義天 목록에서 서명과 저자를 표현하는 교장서명의 특성으로 추론해볼 때 '法界觀式抄'는 遵式이 주석한 4권 분량의 『法界觀門式抄』의 줄인 서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

인다. 또 이 문헌의 존재여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기서 처음 확인되는 고려시대 교장자료인데, 해인사에 소장된 『十門和諍論』과 판식, 크기, 서체가 유사하다.

조선시대의 전적으로는 16세기 판각으로 추정되는 鳩摩羅什 번역의 대자본 『妙法蓮華經』 卷5~7의 2질과 세조연간 간행의 『묘법연화경』 卷1의 제1장, 15세기 성달생계 『묘법연화경』 권1~3과 같은 계열의 1561년 희방사판 권5~7 등이 있다.

이러한 복장다라니와 전적류는 시기적으로 불상의 개금, 중수시기와도 일치하고 비록 낱장이지만 대장경에서부터 敎藏에 이르기까지의 목판본이 있고 필사본에서도 지질과 서체 등을 통하여 당시의 성숙된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다.

주제어 : 청량사(淸凉寺, Cheonryoung Temple), 불복장(佛腹藏, Bokjang), 다라니(陀羅尼, Darani), 실담자(悉曇字, Silldham), 만다라(曼荼羅, Mantra)

투고일 2017년 3월 3일 | 심사기간 2017년 4월 2~11일 | 게재확정일 2017년 4월 30일

참고문헌

【史料】

『高麗史』

『高麗史節要』

『密教開刊集』, 木板本 1冊, 星州 雙溪寺 修道菴本, 1784.

『眞言集(附 佛頂心經)』, 木板本 1冊, 同卜 無等山 安心寺 重刊本, 1569.

『造像經(附 諸佛菩薩腹藏壇儀式)』, 木板本 1冊, 興陽 八影山 楞伽寺本, 1697.

『造像經』, 木板本 1冊, 金剛山 楡岾寺本, 1824.

『准提淨業』, 木板本 1冊, 求禮 華嚴寺本, 1724.

【國文論著】

김무생, 「진언 다라니의 전개와 수행」, 『밀교세계』 창간호, 위덕대학교, 2006, pp. 7~38.

김성수,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書誌學硏究』 第58輯, 韓國書誌學會, 2014, pp. 55~89.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_____, 「契丹과 高麗의 佛教文獻 交流」, 『書誌學硏究』 第56輯, 2013, 韓國書誌學會, pp. 5~42.

_____, 「韓國 所在 佛教 教藏文獻의 書誌調査」, 『書誌學硏究』 第66輯, 2016, 韓國書誌學會, pp. 45~74.

박용진,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對校와 校勘 硏究」, 『書誌學硏究』 第67輯, 2016, 韓國書誌學會, pp. 177~207.

_____, 『義天』, 혜안, 2011.

朴泰華, 「韓國佛教의 密教經典 傳來考」, 『韓國佛教學』 第1輯, 1975, 한국불교학회, pp. 45~62.

徐閏吉, 『高麗 密教 思想史 硏究』, 불광출판부, 1993.

선상균, 「다라니 의미의 체계화 과정」, 『밀교세계』 창간호, 위덕대학교, 2006, pp. 39~90.

許興植, 『高麗佛教史硏究』, 一潮閣, 1986.

黃壽永 編,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_____, 『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社, 1987.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硏究院 編, 『韓國密教思想硏究』, 東國大學校出版部, 1986.

【日文論著】

金剛秀友, 『密教哲學』, 元義範 譯, 경서원, 1981.

德山暉純, 『梵字手帖』, 木耳社, 1989.

山崎泰廣, 『密教瞑想과 深層心理』, 朴畢圭 譯, 以文出版社, 1983.

窪田成円, 『やさしい梵字佛』, 知道出版, 1990.

【圖錄】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국립중앙박물관, 2015.

정암 등편, 『至心歸命禮: 韓國의 佛腹藏 特別展』,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4.

<Abstract>

A Bibliographical Research of the Buddist Literature in Cheongryang Temple

Nam Kwonheui*

Through the following approach, the Buddha relics identified in *Geonchilyaksayeoraebul* of Cheongryang Temple in Cheongryang mountain were examined along with their historical backgrounds and relevance to the anthologies of Joseon Dynasty. Furthermore, several Buddha relics including specific documents and the transcribed Dharani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published years in light of physical bibliograph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cord inside the *Geonchilyaksabul*, the documents filled up the statue in 13 century of Goryeo and was later gilt over the years in 1560 and 1715 of Joseon Dynasty.

Second, among the Buddha relics, there were two identified Dharanis, one which was written based on *Palyeopsimryeonsamsipchiljonmantara* (八葉心蓮三十七尊曼陁羅) and *Iljchelyeoraesim* Tresure chest seal Dharani (一切如來心全身事理寶篋眞言) which are assumed to be 1239 engraved editions are the same Dharanis found in Suguksa Temple (守國寺) as their written period is recorded as 'Gihaesipwol Il Sijung Choi Jong Jun Insi (己亥十月 日 侍中 崔宗峻 印施)'. Furthermore, there is *Dosangbulsimjoo* (圖像佛心呪), which includes *Yukjadaemyeongwangjineon* (六字大明王眞言). To conclude, such phenomenon was presumed to have happened in order for *Seungjaesaek* (僧齋色) to pray for immorality.

Third, although a number of book records are either damaged or separated into sheets, there still are *Guemgwangmyeonggyeong* (金光明經) vol. 2 which was translated by Dam Moo Cham (曇無讖), the First Tripitaka Koreana (初雕大藏經) *Daebanyaparamilgyeong* (大般若波羅蜜經) vol. 269, chapter 14 and 15 of *Jabidojangchambeop* (慈悲道場懺法) vol. 9. The book record from Joseon Dynasty includes *Gangyeongdogam* edition(刊經都監). *Geumgangbanyaparamilgyeong* (金剛般若波羅密經) [Korean Translation Edition] Chapter 36.

Fourth, for Moonsubosal Buddha relics, there are Ten Daranis(十眞言), Five Great Dharanis (五大眞言), Five Small Dharanis (五小眞言) as the Goryeo woodblock editions and the *Bohyupindharanigyeong* is red ink edition in Joseon Dynasty.

Fifth, for the book data, there is the transcribed Goryeo edition which includes *Buljeongsimgwansaeeumbo saldaedharanigyeong Gwonsang*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陁羅尼經 卷上) and *Daebanggwangbulhwaeomgyeong* (大方廣佛華嚴經) *Gwonjaesapgu* (卷第卅九). The latter book is a translated version of *Banya*(Dang) 般若(唐), which is a part of '*Yipbulsaeuihaetalgyeonggaebohyunhaengwonpum*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as *Hwaeomgyeong* (華嚴經) vol. 39.

Moreover, 12th, 13th, 14th page and additional 6 lines of paper of *Byeopgaegwansikcho* vol. 3 (法界觀式抄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三) are created as woodblock print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unknown parts of Gyojang (敎藏). However, in Euicheon(義天) list, they are referred to as the title of four volumes of *Byeopgaegwanmoonsikcho* (法界觀門式抄) annotated by Jun Sik (遵式). In addition, it is similar to Haeinsa Temple's *Sipmoonhwajaengron* (十門和諍論) in terms of size, letter style, and page style.

In conclusion, these Buddha Dharanis and documents match the recorded period of Buddha gilt process and include a wide range of woodblock editions from the Tripitaka to Gyojang (敎藏) in pages. Furthermore, along with the Buddha relics, the manuscripts represent the then mature Buddhist culture.